

6 종합

불안한
와이파이
개선은?

하시언 기자 hse0622@khu.ac.kr

교내 와이파이 불안정 문제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양 캠퍼스(양캠프) 총학생회(총학)는 교내 와이파이 점검 및 개선을 실시했다. 와이파이 불안정 문제는 작년부터 계속됐다. 이를 해결하고자 정보처는 각 이용자에게 할당하는 IP 수를 캠퍼스별로 2만 개에서 4만 개로 증설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접속 끊김, 로그인 오류, 속도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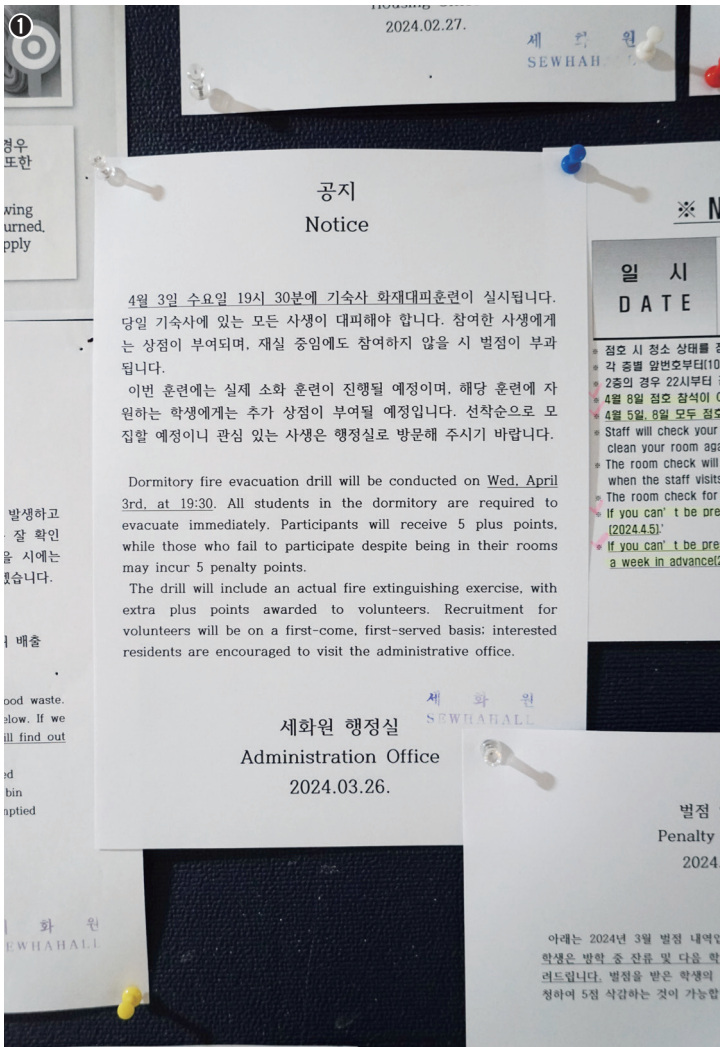
양캠프 총학은 올해 공약으로 ‘교내 와이파이 점검 및 개선’을 내세웠다. 이에 서울캠퍼스(서울캠) 총학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교내 와이파이 불편 사항 실태를 조사했으며 국제캠퍼스(국제캠) 총학은 지난 29일부터 오는 4월 5일까지 실시 중이다.

서울캠 총학이 발표한 ‘2024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와이파이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총 응답자 261명 중 총 117명이 ‘불만족’에 답해 매우 저조한 만족도를 보였다. 이유로는 ‘연결 속도’와 ‘잡음 끊김’이 가장 많았다. 사용에 불편함을 느낀 장소는 청운관이 13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경대학이 4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대형 강의실에 공유기를 추가 설치해 달라’는 등의 의견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캠 정보처는 “지하 공간은 벽 같은 구조물로 신호 강도가 약해질 수 있으며 밀집도가 높은 공간의 경우 AP가 충분하더라도 끊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후속 조치에 대해 정보처는 “민원 사항을 검토한 뒤 의견을 취합해 개선 방안을 만들어 후속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양캠프 총학은 “해당 실태조사 결과를 정보처에 전달한 뒤 면담을 진행해 불편 사항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연우(무역학 2023) 씨는 “청운관에서 온라인 시험을 쳤던 경험이 있는데 와이파이 끊김 현상이 발생해 시험 도중 창이 사라지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는 핫스팟을 사용해야 해 불편하다”고 말했다.



1. 세화원은 오는 4월 화재대피훈련에서 실제 소화 훈련을 진행한다. 2. 현재 세화원에는 층별로 6개의 소화기가 설치돼 있다.



(사진=박상희 기자)

세화원 1~3층 스프링클러 부재, 대안 필요

박상희 기자 smtg7475@khu.ac.kr

【서울】세화원 내 소방시설 보강이 여전히 필요한 상태다. 지난해 우리신문은 세화원의 소방시설 보완 필요성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불안한 기숙사 소방안전, 안전불감증 우려돼/대학주보 1699호/2023.03.18) 기사에 따르면 세화원 내 1~3층 호실에는 화재경보기만 설치돼 있고, 4~5층에는 스프링클러만 설치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세화원은 소방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다. 법률 개정 이전에 설계시공된 건축물에는 법률 개정 사항이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세화원이 준공된 2005년에는 4층 이상, 바닥면적 1,000㎡ 이상에만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였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화재경보기 설치가 면제됐다. 이후 법이 개정되며 연면적 5,000㎡ 이상 건물 전 층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내용이 추가됐다.

관리팀은 지난해 3월 29일 소통간담회 당시 “배관과 마감재 등 여러 구조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하지만 안전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소방 점검업체와 협의해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관리팀

오영민 소방 담당은 “스프링클러 설치를 위해 물 배관과 이를 조작할 수 있는 밸브실이 있어야 한다”며 “모든 호실 천장에 배관을 설치하려면 기숙사 복도부터 모든 호실을 철거해야 하는 대공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사에 들어가는 기간과 비용을 고려할 때 당장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소방 안전 전문가는 스프링클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방재관리 연구센터 김정곤 연구실장은 “스프링클러가 화재 초기에 작동하면 웬만한 화재는 진압되며 확산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경희사이버대학교 재난안전학과 하각천 교수 또한 “스프링클러는 화재 초기 열의 상승과 연기 발생을 억제해 이보다 좋은 소방시설이 아직은 없다”며 “사람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간이형 스프링클러 설치 혹은 소화기 확충 등의 대안도 제시했다. 하 교수는 간이형 스프링클러는 설치가 간단하지만 큰 효과가 있

다고 설명했다. “간이형 스프링클러는 간단하게 공사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해도 일반 스프링클러에 비해 성능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며 “현재 공사가 어려운 옛날 병원 건물에 많이 설치돼 있고, 이를 기숙사에도 충분히 확대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건물 마감 점검 필요성도 강조했다. 화재 시 연기가 빠르게 퍼지는 걸 막기 위해 건물 내 호실 사이가 잘 막혀야 한다는 설명이다. 하 교수는 “기숙사 건물은 방마다 독립돼 있는데 이 방 사이를 잘 막아야 한다”며 “옛날 건물은 천장 속이 뚫려 있는 경우가 있는데 화재 시 불이 옆과 위로 빠르게 번져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실장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에서 정하는 수 이상의 소화기를 배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실장은 “눈에 잘 띄는 곳에 일정 거리를 뒀 소화기를 여러 개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한 다국어로 제작된 소방 안전 관련 자료 배부도 필요하다. 세화원은 사생의 7~80%가 외국인 유학생이다. 세화원 측은 화재대피 훈련 시 한국어로 된 안내방송을

영어로 번역해 방송하고 있고 훈련 진행 시에도 관리팀의 지시를 영어로 통역해 안내한다. 하지만 세화원 내 대만, 라오스, 몽골 등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지 않는 국적의 유학생도 존재한다. 김 연구실장은 “소방서에 요청하면 다국어로 된 교육 자료를 제공해 준다”며 “기숙사 입주 시에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기숙사와 세화원은 화재대피훈련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상벌점제도를 도입했다. 세화원은 오는 4월 3일 화재대피훈련에서 학생이 실제로 소화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소화 훈련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오영민 소방담당은 “소방 훈련은 기숙사에서 자체적으로 하지만 이번에 소화기 지원을 해보는 생각에서 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4월 세화원 내 노후 완강기를 교체했다. 오 담당은 “한번 쓸 수 있는 설비지만 안 쓰다가 갑자기 쓰려고 하면 사용이 안 될 수도 있기에 이를 대비해 모두 교체했다”고 말했다. 스프링클러 확충 계획에 관리팀 한덕영 팀장은 “스프링클러 설치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보고 본부에서도 한번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